

폴란드 조기대선 실시 배경과 헝가리 총선 결과 분석

1. 폴란드 조기대선 실시 배경

□ 2010년 4월 10일 비행기 사고로 카친스키 대통령 사망

- 카틴 숲 학살 사건¹⁾의 7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향하던 폴란드 대통령의 특별기가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 근처에 추락하여 레흐 카친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 89명²⁾ 및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함.
- 이번 사고는 4월 7일 러시아 정부가 주최한 공식 추모식³⁾에 초대받지 못한 대통령이 정부 대표단과 별도의 추모행사를 진행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직후에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러시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해 온 대통령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⁴⁾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테러 가능성 보다는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한 공항 관제탑의 회항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1)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는 독일로부터 폴란드 사회지도자급 인사 수만 명을 넘겨 받았으며, 1940년에 2만 명 이상을 학살함. 최대 규모 학살이 자행된 곳의 이름을 따서 '카틴 숲 학살사건'으로 불림.

2) 푸트라(Krzysztof Putra) 하원 부의장, 슈마이진스키(Jerzy Szmajdzynski) 하원 부의장, 보헤넥(Krystyna Bochenek) 상원 부의장, 콩고르(Franciszek Gogor) 참모총장, 스크쉴렉(Slawomir Skrzypek) 중앙은행 총재 등

3) 러시아는 4월 7일 푸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카틴 숲에서 공식 추모식을 주최하였는데,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초청한 반면 친미 성향의 카친스키 대통령은 초청하지 않았음.

4) 폴란드는 1939년의 '독일·소련 불가침조약'으로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할 수 있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으므로 구소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해 왔음.

故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의 주요 경력

- 1949년 6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 출생
- 바르샤바 대학 법학 및 경영 학사, 그단스크 대학 법학 박사
- 1970년대 폴란드에서 일어난 반공산당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계에 입문
- 1980년 레흐 바웬사(Lech Walesa, 전 폴란드 대통령)와 폴란드 연대노조 파업에 참여함.
- 1989년 연대노조 부위원장 및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90년 바웬사의 대통령 당선 후 보안장관에 임명되었고, 1996년에는 법무장관에 임명됨.
- 2001년 보수우파 가톨릭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을 야로슬라브 카친스키⁵⁾와 함께 창당하였으며, 2003년까지 당 총재를 지냄.
- 2002~2005년까지 바르샤바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 10월 사회복지 공약을 통한 소외계층으로부터의 지지로 친기업 성향의 시민강령당(PO) 후보인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현 총리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임기 5년의 마지막 해인 금년 10월 대선 출마할 계획이었음.

자료: <http://www.president.pl/en/president/biography>

□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의 직무대행 체제 돌입

- 대통령이 사망하자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헌법⁶⁾에 따라 코모로프스키(Bronislaw Komorowski)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임명됨.
 - 코모로프스키 직무대행은 하원의장 직을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회 법안에 대한 서명 등 최소의 대통령 업무만 대행 중
- 당초 금년 10월 초로 예정되었던 대선이 6월에 조기 실시되게 되었음.
 - 대통령 임기 중 사망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 직무대행이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하며, 선거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폴란드 헌법에 따라 금년 6월 20일 조기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코모로프스키가 발표함.

5) 야로슬라브 카친스키(Jarolaw Kaczynski) 법과정의당(PiS) 총재와 쌍둥이 형제임.

6) 폴란드 헌법 제131조 2항은 '대통령 사망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선거를 통한 신임 대통령 임명시까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총선 이후 법과정의당 지지율 하락세

- 폴란드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로 대통령은 직선제(5년 임기, 2회 연임 가능)로 선출하고 있음⁷⁾.
- 2005년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iS)이 자유보수 성향의 시민강령당(PO)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시민강령당과의 연정 시도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발생함.
- 법과정의당은 극우파인 자위당(SD), 가족당(LRP)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결국 연정이 붕괴되자 2007년 10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였음.
- 2007년 하원(Sejm)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이 승리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폴란드농민당(PSL)과의 연정구성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시민강령당의 총재인 도날드 투스크를 총리로 선임함.
- 카친스키 대통령이 주요 입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연립정부는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9년 유럽의회선거⁹⁾에서 시민강령당이 44.4%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27.4%에 머무는 등 당초 2010년 10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카친스키 대통령의 재임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었음.

□ 동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의 대통령 당선 유력

- 조기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5월 6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며,

7) 폴란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을 통솔하며,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제한적인 의회해산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을 가짐.

8) 하원(Sejm)의원 선거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로 4~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선거구별로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460석, 임기 4년)이 배분됨. 상원(Senate)의원 선거는 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2~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선거구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100명(임기 4년)을 선출함.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에게 있으며, 하원의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됨.(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 산업현황과 투자환경', 2009년 6월)

9) 총 736명의 EU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EU 27개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가별로 의원수를 할당하여, 폴란드에는 총 50석의 의석수가 배정되었음. 폴란드에서는 대표의원 선거를 2009년 6월 8일 실시하였으며, 시민강령당이 25석, 법과정의당이 15석, 민주좌파그룹(LiD)이 6석, 폴란드농민당이 4석을 확보하였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주 내(7월 4일)에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됨.

- 사고 직전까지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 3위이었던 카친스키 대통령과 민주좌파동맹(SLD)의 슈마이진스키 하원 부의장이 사망하자, 3월 25일에 대선 출마를 발표한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유일한 유력 당선 후보로 남게 되었음.

- 정당별 예상 후보는 시민강령당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총재, 폴란드농민당의 파블락(Waldermar Pawlak) 부총리, 극우당인 자위당의 레페르(Andrzej Lepper) 총재, 시민강령당을 창당한 무소속 올렉쇼프스키(Andrzej Olechowski) 전 외무장관 등임

- 이번 사고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55%의 지지를 얻어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총재(32%)를 크게 앞서는 등 대통령 사망에 따른 동정 여론이 큰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2. 헝가리 총선 결과 분석

□ 중도우파의 압승으로 8년 만에 정권 교체

- 제1야당인 중도우파 청년민주연맹(Fidesz)이 금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총선에서 총의석 386석 중 과반수인 263석을 획득하여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함.

- 총선에는 집권여당인 사회당(MSZP)과 청년민주연맹 외에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요빅(Jobbik,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 녹색정당인 '차별화된 정책당'(LMP) 등이 각축을 벌였음.

헝가리 총선 결과

(단위: 석, %)

	1차 투표		2차 투표			합계 (의석비율)
	지역구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지역구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사표 보상석 (전국구)	
청년민주동맹	119	87	54	-	3	263 (68.1%)
사회당	-	28	2	-	29	59 (15.3%)
요빅	-	26	-	-	21	47 (12.2%)
녹색당	-	5	-	-	11	16 (4.1%)
무소속	-	-	1	-	-	1 (0.3%)
총의석수						386 (100%)

자료: 헝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valasztas.hu).

- 4월 11일의 1차 투표(지역구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총 386개의 의석 중 265석이 확정되었으며,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에서 청년민주연맹이 52.8%를 득표하여 206석을 획득하였음.
 - 사회당은 28석(득표율 19.3%)에 그친 반면, 요빅은 26석(16.7%)으로 급부상하였고, 녹색당(LMP)이 5석(득표율 7.4%)을 차지하여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음.

- 4월 25일의 2차 투표에서 121석(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57개 지역구 의석 포함)이 확정되었는데, 청년민주연맹은 57석(지역구 54석 포함)을 추가로 획득하여 총 263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개헌에 필요한 2/3 의석(258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단독 거대 여당이 됨.
 - 사회당은 31석을 추가한 총 59석, 요빅은 21석을 추가한 총 47석, 차별화된정책당은 총 16석을 확보하게 됨.

헝가리 의회 선거제도

- 총 386석(4년 임기)을 선출하는 의회 선거는 지역구(176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52석), 사표 비율로 의석을 나누는 보상체계(58석) 방식으로 치러지는 혼합형임.
- 1, 2차 투표로 정당별 의석이 결정되는데, 1차 투표 후 2주 후에 실시되는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석과 보상체계 방식에 따른 의석이 배분됨.

- 1차 투표: ① 지역구 의석은 투표참여율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
- ②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2차 투표에서 득표 순위 3위까지의 후보와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를 상대로 재선거 실시
- ③ 비례대표석은 투표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1차 투표에서 의석 배분
- 2차 투표: ① 지역구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 1인당 1후보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 ② 비례대표석은 투표참여율이 미달될 경우 1인당 1정당 투표
- ③ 투표참여율이 25% 미만이거나 후보자 2인이 동수로 득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득표자 선출
- ④ 비례대표석은 투표참여율이 25% 미만인 경우 사표로 처리
- ⑤ 비례대표석에서 사표로 처리된 표수와 1차 투표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의 사표의 합을 기준으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58석 배분

자료: 헝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valasztas.hu).

□ 경제난에 따른 사회당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 교체

- 2002년부터 8년 동안 집권해 온 사회당은 복지확대 및 정부보조금 정책 등의 경제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집권 1기(2002~06년) 당시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6년에는 GDP 대비 9%를 초과함.
- 2007년 이후 강력한 재정긴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사회당과 자유민주연맹(SZDSZ)의 연정 붕괴에 의한 경제개혁 지연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2008년 10월에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총 251억 달러의 구제금융(대기성차관)을 받게 됨.
- 이번 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하고 중도우파인 청년민주연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도 경제난 지속과 재정긴축에 따른 세금 인상, 급여·연금 삭감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임.
- 요빅의 의회 진출도 이번으로 평가됨. 경제난으로 사회적으로 집시·유대

인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임.

요빅(Jobbik)

- 2002년 대학생들에 의해 극우청년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3년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이라는 의미의 요빅(Jobbik)으로 창당됨.
- 요빅은 2006년 총선에서 의회 진출에 실패한 후 2009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15%를 득표해 3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주목받기 시작함.
- 요빅은 이번 총선에서 법과 질서, 집시 범죄와의 전쟁 등을 정강으로 내세웠으며, 보호주의, 반 유럽연합, 반 유대주의와 민영화 반대,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연장과 언론 국유화 등을 주장함.
- 요빅은 집시들을 규탄하며 충돌을 빚어 온 헝가리 호위대(Magyar Garda)와 관련되어 있음. 총재인 가보르 보나(Gabor Vona)는 2009년 7월 헌법재판소가 호위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항의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등 호위대의 지도자로 활동 중임.

자료: <http://www.politics.hu>

□ 헝가리 경제정책, 긴축재정에서 확대정책으로 선회 예상

- 청년민주연맹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재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이 재정긴축이 아닌 경제성장 위주가 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대규모 주택건설, 감세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 오르반 총재는 IMF와 합의한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GDP의 3.8%)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힘으로써 재정책대정책을 시사해 왔음.
- 청년민주연맹은 새정부 출범 후 IMF에 금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제금융의 상환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2010, 11년 재정적자 목표를 조정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 2010년 중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감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책대정책으로 인하여 연초 목표인 GDP의 3.8%를 넘어선 4.5~6.5% 수준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이진경 (☎ 02-3779-6686)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